

트럼프, “식품점 문 안닫는다” 국민에게 사재기 중지 호소

최대 식품점체인 임원들과 면담후 발언

美 뉴욕시, 코로나19로 ‘예정 수술 취소’ 행정명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식료품과 생필품 사재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을 향해 식료품이나 생활용품을 미리 대량 구매해서 쌓아두는 일을 중지하라고 요청했다.

그는 전국의 주요 식료품 체인회사 임원들과 면담한 뒤에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식품회사 체인점들은 계속 문을 열고 있을 것이며 생필품 공급 체인은 계속 건재하다고 강조했다.

마이크 펜스부통령도 같은 기자회견에서 미국민들은 예전처럼 앞으로도 1주일 분의 식료품 정도를 구매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는 같은 날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 보건원 산하 국립 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장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응해서 긴급히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한 것과는 다른 분위기이다.

파우치 박사는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 전체가 확산속도를 늦추는데 나서야 하며 정부도 전국적으로 14일간의 전면 봉쇄 등 더 신속하고 공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이들에게 식료품 재고 확보를 위한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꾸준히 물량을 확보해서 미국인이 필요 한 물건이 언제나 선반에 가득한 것을 보고 조용하고 안전한 느낌을 받게 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백악관의 저드 디어 대변인이 전했다.

한편, 미국 뉴욕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역내 모든 병원의 예정 수술(elective surgery)을 당분간 취소시키기로 했다.

뉴욕시 홈페이지에 따르면 빌 더블 라지오 뉴욕시장은 15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대응 특별 조치를 설명하며 “내일 뉴욕시 모든 병원에 향후 예정 수술을 취소하도록 요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블라지오 시장은 “이는 주 비상사태 상황에서 존재하는 권한 중 하나” 라며 “모든 병원이 즉각 예정 수술을 없애야 하는 건 아니지만, 곧 그렇게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명령을 통해 이를 성문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조치는 긴급하지 않은 수술을 중지함으로써, 의료진의 코로나 19 대응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뉴욕시는 아울러 16일부터 최소 4 월 20일까지 주내 공립학교에 휴교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더블라지오 시장은 “4월 20일에 학교 재개방을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최악의 경우 2019~2020 학사연도 전체 휴교 가능성도 열어뒀다.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뉴욕시 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주민 수는 329명에 달한다. 뉴욕타임스(NYT) 추산 뉴욕 주 차원 누적 확진자 수는 이날 저녁 기준 732 명이다.

송원기 기자 mbc0300@gmail.com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코로나19로 개학 연기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해 영상회의를 하고 있다.

서울 모든 학생에게 KF80 이상 ‘필터교체형 면 마스크’ 지급

서울시교육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유치원생과 초·중·고등학생, 특수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 등 모든 학생에게 필터교체형 면 마스크를 지급하기로 했다. 3장은 학생에게 직접 주고 나머지 1장은 학교가 비축용으로 보관하거나 저소득층 학생에게 추가로 지급하게 할 방침이다.

면 마스크를 비롯해 학교에 방역 물품을 지원하는 데 총 159억원이 투입된다. 교육청은 8억원을 들여 학생이 300명 이하인 초·중·고등학교 100곳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다. 전교생이 300명을 넘는 학교에는 정부가 열화상 카메라 설치를 추진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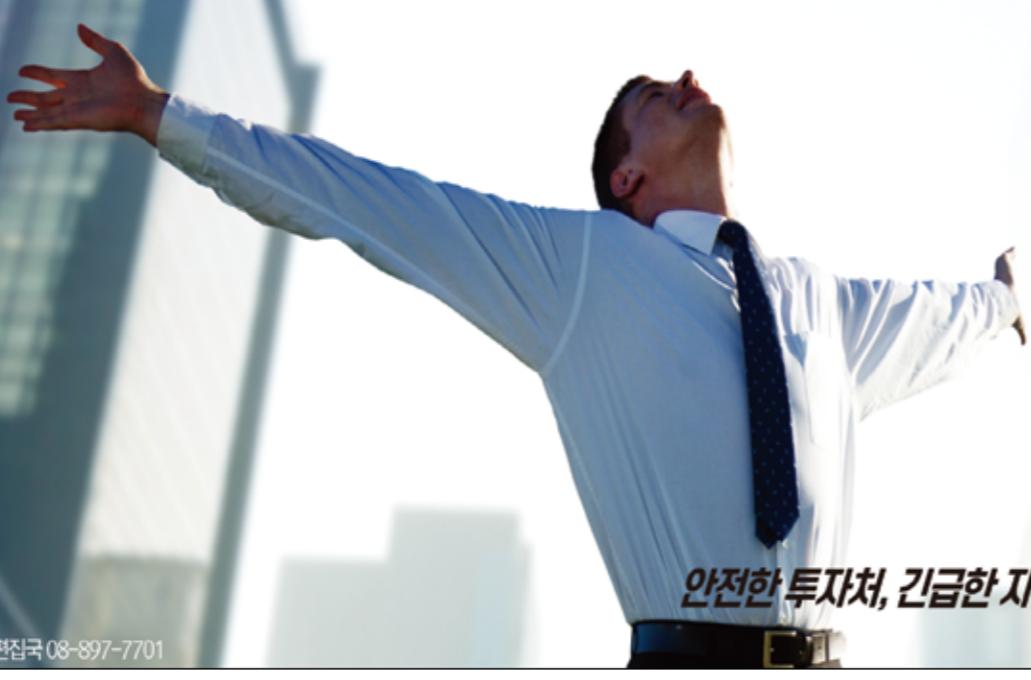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일회용 방역 마스크도 구매할 수 있게 되면 구매해 (학교에) 공급하겠다”면서 “추가 개학 연기 여부와 관계없이 학교를 방역하는 데 필요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임호근 기자 diorparty1501@gmail.com

*증가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과도한 빚은 당신에게 큰 불행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www.kfunding.co.kr

“금융혁신을 통해 상생금융을 만들어 갑니다.”



안전한 투자처,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

투자자에게는
안전한 투자 기회를!



다양한 혜택과 함께 안전한 투자상품을 제공

대출자에게는
합리적인 중금리 대출 기회를!



인정된 사업을 위한 중금리의 대출지원

1 고객과 의사소통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하여
고객님과의 소통에 집중하겠습니다.

2 투명한 정보공유

투자판단 시 올바른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를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3 정직한 마음가짐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하여
고객님과의 소통에 집중하겠습니다.

4 새로운 기술혁신

기술혁신을 통하여 Finance
Technology 실현하겠습니다.

5 담보물의 안전성

담보물의 안전성을 통하여
고객님의 원금 확보에 집중하겠습니다.

6 따라올 수 없는 수익률

저금리 시대에 타 금융기관보다 높은
합리적인 수익률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K-FUNDING

(주)케이펀딩 / 사업자 등록번호 318-81-09046
서울 강남구 명동대로 342 덕유빌딩 3층
Fax.02-552-1773 / E-mail:help@kfunding.co.kr

02-552-1772

김포공항 국제선 개항 40년만 운항편 없어

이용객 없자 매출 급감한 공항 롯데면세점 무기한 휴점



12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청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날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출도착 항공기는 0편, 이용객 또한 0명을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항공기 운항이 급감한 김포공항 국제선이 12일 일시적으로 운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는 김포 국제선 청사가 개항한 1980년 이

후 40년만에 처음이다. 이날 김포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일본과 중국을 오가는 항공편수가 급감하면서 현재 김포와 중국 북경, 상해

를 운항하는 여객기가 각각 주 2회와 6회 운항되고 있다. 이렇게 줄어든 상황에서 이날 공교롭게도 두 항공편의 운항이 없어 결국 국제선 운항편이 0편이 된 것이다. 항

공편수 급감으로 인해 생겨난 장면이다.

김포공항 국제선의 예년 항공기 운항편수는 주 392편이었으며, 이 중 일본과 중국을 오가는 항공기는 252편에 달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면서 일본과 중국을 오가는 항공편수가 급격히 줄었고, 급기야 이달 9일부터는 일본이 한국행 입국자에 대해서 14일 간 격리조치 방침을 밟히면서 일본을 오가는 항공편은 사실상 중단돼버렸다.

또 김포공항 국제선에 입점한 롯데면세점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매출이 50% 이상 급감, 이날부터 운영을 중단한 상태다. 아직까지 재개장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공사 관계자는 “12일 하루만 국제선의 운항 스케줄이 없는 것 뿐”이라며 “국내선의 항공기 운항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곽동근 기자 joongwon1993@hanmail.net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하여 위생용품 품절 문구가 게시돼있다.

마스크 KF94 대신 KF80 제조로 유통

마스크에 핵심 필터인 MB필터 원자재 20% 감소

국내 전체 보건용 마스크에서 KF80 제품은 5%, KF99 제품은 2~3% 등에 불과하고 나머지 92~93%는 KF94 제품이 차지한다.

제조업체들은 KF94 제품을 만드는 게 경제적이라고 판단해 KF80보다는 KF94 생산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보건용 마스크 생산의 필수 부자재인 MB(벨트 블로운) 필터가 KF80보다는 KF94에 훨씬 많이 들어간다는 것.

업체 관계자와 전문가한테 확인한 결과, KF94 생산에는 MB 필터가 KF80보다 20% 가량 더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국내에서는 MB 필터가 아직 재고량이 있지만, 공급량 부족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마스크 생산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고 독일, 미국 등 여러 나라에 수입하는 방안을 타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양 차장은 “MB 필터의 수급을 조금 더 원활히 하고 업체들이 이 필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완화해주고자 단일계약자인 조달청을 통해 KF80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

는 등의 방법으로 되도록 KF94보다는 KF80 쪽으로 생산하도록 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KF94에서 KF80 쪽으로 생산시설을 전환하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양 차장은 “이렇게 해서 KF94에서 KF80으로 생산을 전환하면 단순 계산으로 원자재량은 20% 감소하는 대신 실제 생산량은 최대 1.5배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통계도 나와 있다”고 말했다.

보건용 마스크 제품(KF80, KF94, 'KF99')에 적혀있는 KF는 '코리아 필터(Korea Filter)'를, 숫자는 입자차단 성능을 뜻한다.

'KF80'은 평균 0.6㎛ 크기의 미세입자를 80% 이상 차단해 황사·미세먼지 같은 입자성 유해물질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수 있다.

'KF94', 'KF99'는 평균 0.4㎛ 크기의 입자를 94%, 99% 이상 각각 막아서 황사, 미세먼지 같은 입자성 유해물질과 신종플루 등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수 있다.

송원기 기자 mbc0300@gmail.com

정부 ‘추가 개학 연기’ 여부 결정된 바 없어

각급 학교 23일 이후 개학 또는 추가 연기는 아직 미정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12일 초·중·고교와 어린이집·유치원 등의 개학·개원 여부를 다음 주 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이날 국회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학교 개학 여부, 어린이집 등의 개원 여부를 묻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박 차관은 “학교의 (수업) 준비 등을 감안하면 다음 주 초까지는 (개학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류근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부모 돌봄 문제가 커지고 있고,



이를 고려해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사태를 봐야 한다”며 “복지부도 다음 주 초·중순께 어린이집 등의 개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어린이집에서 대학교까지 취약 정도가 다르고 선생님의 통제 정도도 다르다”며 “일률적으로 개학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학교 유형별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할 듯하다”고 주문했다.

조 의원은 또 “만약 3월 23일 개학하면 방역 대책, 마스크나 손 소독제, 화상 카메라 등 집단시설에 준하는 정도의 방역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불가피하게 (개학이) 연기되면 플랜B를 가동해야 한다. 플랜B도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대범 기자 55db@naver.com

더연합타임즈 서울포커스

www.theuniontimes.co.kr

회장 송원기 발행 편집인 추교진

인쇄인 혐재오

대표전화 : 1899-2026 팩스 : 02-558-2289

E-mail :

mbc0300@gmail.com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등대로 342

2020년 2월 24일 창간 / 등록번호 : 서울, 가 50134

구독신청·배달안내 : 1899-2026 / 구독료 : 월 15,000원 ~ 1부 8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사랑한다면,
금연하세요!



금연 약속,
올해는 꼭 지키세요!

금연 하나 했을 뿐인데
당신은 건강해지고, 가족은 더 행복해집니다.

가까운 병·의원에서 금연치료 받으세요

금연치료 지원대상

- 금연치료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 (1년에 2회까지 금연치료 지원)

금연치료 의료기관

- 공단에 참여 신청한 의료기관 (영·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 금연치료 의료기관 정보는 공단 홈페이지 (<http://www.nhis.or.kr>)에서 확인 가능

금연치료 지원내용

- 8주에서 12주 동안 6회 이내 의사의 전문적인 진료·상담 제공
- 진료·상담료와 금연치료의약품 구입비용 80%지원, 금연보조제 구입 비용 일부지원

인센티브 지급

-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하면 본인부담금 환급과 긴강관련 물품 지급

문의전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의원 이적’ 정체에 與 비례정당 변수… 미래한국당, ‘기호 2번’ 얻을까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자매정당 미래한국당이 총선에서 정당투표 용지 기호 ‘2번’을 확보하려는 계획이 생각 만큼 잘 풀리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여권 ‘비례연합정당’의 탄생도 변수라는 평가다.

12일 현재 미래한국당이 보유한 의석수는 5석(한선교·김성찬·이종명·정운천·조훈현)이다. 이날 강원 원주시 갑에서 불출마를 선언하고 미래한국당 합류를 선언한 김기선 의원이 합류하면 총 6석이 된다.

다만 당초 원하던 기호 ‘2번’을 얻기 위해선 보다 더 많은 의원들의 합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당투표 용지의 기호 순번은 현역 의원의 의석수대로 결정되기에 현재 상황에서 지역구 후보자 투표용지에서 통합당이 받을 ‘2번’과 밸을 맞추기 위해선 원내 제3당인 민생당의 19석을 넘어서야 한다.

문제는 불출마를 선언했거나 혹은 공천 심사에서 캇오프된 의원들이 선뜻 미래한국당행을 선택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박인숙·정갑윤·정병국 의원 등은 불출마 선언과 함께 “미래한국당에는 가지 않는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지난달 5일 오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미래한국당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당대로 선출된 한선교 대표가 두 팔을 들어올려 인사하고 있다.

통합당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불출마 선언을 한 의원들도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한 의원들이 대부분 분이다. ‘당을 위해 희생하는 그림’ 하니 정도가 얻을 수 있는 부분인데, 당지도부가 리더십을 갖고 설득해 내는 게 중요한 문제”라고 언급했다.

한선교 대표는 여전히 낙관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불출마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한국당으로 옮기는 것 보다 한 데 모여

서 열명이고 스무명이고 모여서 들어갈테니 우려하지 말라고 전해왔다. 설득하지 않아도 공통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녹색당·미래당 등 범여권 군소정당들과 추진하고 있는 ‘비례연합정당’ 움직임이 변수라는 평가다. 민주당은 현재 민생당과 정의당에도 ‘비례연합정당’ 합류를 제안해놓고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이 합류하면 단번에 스무석 넘

게 의석수를 얻게 돼 기호 1번 확보 여부를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양 당 모두 합류를 거절할 경우 민주당 내 의원들의 이적을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정당투표 기호순서는 후보 등록 마감일인 27일의 의석수를 기준으로 정하기에 어떤 의원을 보낼지 선별하고 설득하는 작업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앞서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가 통합당에서 이적할 당시, 정당법 위반이라며 황교안 통합당 대표를 고발한 전례도 있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도 크기에 의원들이 꺼려할 가능성도 크다는 평가다.

‘비례연합정당’에서 의석 수를 얼마나 확보할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기에 미래한국당 입장에서도 오는 27일에 몇 명의 의원을 확보해야 2번을 얻게 될지를 두고 샘별이 복잡해진다.

미래한국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권의 행보도 예의주시하며 통합당의 원들 설득 작업도 병행해야 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우선은 공천 작업과 후보군에 있는 의원들의 의사를 파악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광민 기자 hanminilbo@daum.net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를 화상으로 참석해 진행하고 있다.

국민의당, 오늘 첫 공천관리위 회의

다음 주부터 총선 후보자 추천 등 여러 문제 있어

국민의당이 13일 4·15총선을 위한 비례대표 후보 접수를 마감하고 첫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대구에서 의료봉사 중인 안철수 대표의 당무 복귀를 요청한 상태다.

이승훈 국민의당 대변인은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오늘 오후 5시께 총선 공관위 첫 회의가 있다. 공관위 비례대표 후보 신청은 오늘까지”라며 “조만간 선대위(선거대책위원회)도 구성될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비례대표 지원자 수에 대해 “어제부터 많이 오고 있다. 오늘 최종적으로 많이 올 것 같다. 참여와 관련 오늘 공관위 첫 회의 때 발표든 어떤 형식이든 멘트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라 기자 ditifk115@naver.com

文대통령 지지도, 5%P 급등 49%…코로나 확산세 주춤 영향

‘코로나19’ 대처 잘함 6주 연속 긍정평가 이유 1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면서 정부의 방역 대응이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갤럽은 3월 2주차(10~12일)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결과 응답자 가운데 49%가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주보다 5%포인트나 상승한 수치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3%포인트 하락한 45%로 조사됐다. 어느 쪽 아님(3%), 모름·응답 거절(3%) 순으로 집계됐다.

1월 2주차(긍정 47% 부정 43%) 조사 이후 9주 만에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상승세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전반적으로 주춤한 것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집단 감염의 발원지인 신천지 신도에 대한 전수 조사가 마무리됐고,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대로 떨어지면서 전반적으로 소강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대통령 긍정 평가 이유에는 ‘코로나19 대처’가 6주 연속 1위를 기록했다. 전주 대비 7%포인트 오른 44%로 집계됐다.

이어서 최선을 다함(9%), 전반적으로 잘함(7%) 순으로 긍정평가 이유를 들었다. 정직함·솔직함·투명함(5%) 항목도 뒤를 이었다.

박형주 기자 phj1654911@naver.com

정세균 총리 “TK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통령과 상의…곧 정식 건의”

정세균 국무총리가 대구·경북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상의했다며, 조만간 정식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13일 오전 대구 중구 대구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가장 급했던 순간이 지나 가면서 대구·경북 시민들의 상처가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대구·경북 시민들은 일상을 잊어버리고 생활에 큰 타격을 입었다”며 “대구·경북 지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에 대해 대통령께 상의드렸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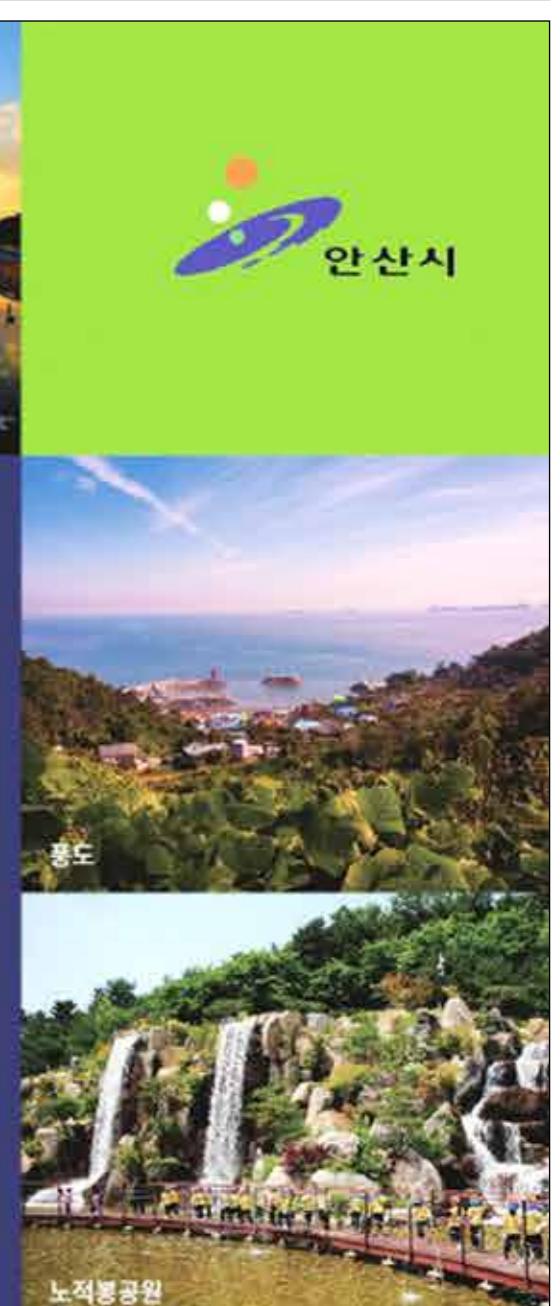
이어 “현재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마무리되는 대로 조만간 대통령께 정식 건의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어제 중부권에 이어 오늘은 정부기관이 밀집된 세종, 대전, 충청권 방역상황을 점검하겠다”고 했다.

정 총리는 “대구·경북 시민들은



2020
안산
방문의 해

람사르습지 대부도 갯벌과
대송습지를 품은 시화호가 있는 곳,
서해안의 관광 중심 안산



신천지 최대 위기...창립 36년만에 존립마저 위협

‘코로나 진원’ 오명에 14일 기념행사 취소

창립 36주년을 앞두고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신천지는 이단이라는 끊임없는 비판에도 폭풍 성장세를 이어와 코로나19 확산의 진원으로 지목되며 존립마저 위협받는 상황에 몰렸다.

이 단체는 35주년인 지난해에는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신도 2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 예배를 했다. 지난달 18일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뒤 신도 사이에서 코로나 환자가 대량 발생하자 올해는 행사 자체를 취소했다.

내부적으로는 이례적인 조치였으나 신천지만의 독특한 예배, 은밀한 전도가 코로나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이 거세지며 여론은 급속히 악화했다. 종교계 안팎의 거센 이단 시비에도 장기간 성장세를 유지한 배경에는 이만희 총회장을 중심으로 한 내부 결속력이 컸다. 이 총회장을 정점으로 ‘7교육장’과

‘12지파장’, 총회 총무와 24개 부서장이 실무 권력을 분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장 일곱자리는 현재 교체를 이유로 비어있다. 여기에 주요 직책 경험이나 사회적 지위가 있는 이들이 신천지 법인 이사로 포진했다.

신천지 내 고위직으로 분류되는 이들 가운데 이탈자가 나오고, 이 총회장 최측근이라던 김남희 전 세계여성평화그룹(IWPG) 대표가 2018년 탈퇴한 뒤 내부 폭로를 이어오긴 했으나 이를 신천지 전체의 위기로 보는 이는 많지 않았다. 되레 신천지가 과거처럼 의혹을 제기하는 이들을 상대로 강도 높은 법적 대응을 통해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보는 이가 많았다.

그러나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비롯된 코로나 확산사태는 신천지 조직 전체를 송두리째 흔들어놓은 모양새다.

신천지는 현재 정부의 전방위적인 압박에 직면해 있다.

이재웅 “타다금지법 책임 지고 쏙카 대표 사임한다”

이재웅 쏙카 대표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다. 일명 ‘타다금지법’이라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막지 못한 책임을지고 대표 자리에서 사퇴한 것이다.

차기 대표 자리는 타다를 운영하는 VCNC의 박재우 대표에게 돌아갔다. 오는 4월로 예정됐던 타다 법 인 분할도 물거품이 됐다.

쏘카는 13일 이사회를 열고 박재우 최고운영책임자(COO)를 신임 대표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VCNC 대표를 겸직할 계획이다.

이재웅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타다를 지키지 못한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어찌 되었던 저는 졌다”며 “저의 사임으로 문제를 해결

되지 않겠지만, 반대로 제가 있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는 것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이제 다음 세대에게 문제 해결을 맡겨야 할 때”라며 다음 세대가 혁신을 이어갈 것을 당부했다.

쏘카에서 타다를 분할해 독립기업으로 출범하려던 계획도 철회했다. 이는 지난 6일 여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타다의 사업 확대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타다는 여객법 개정안 하에서는 수의를 얻기 힘들다 판단해 오는 4월 11일부터 타다 베이직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프리미엄, 에어, 프리미넷 등의 서비스는 지속 운영된다.

박행주 기자 phj1654911@naver.com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행정조사에 착수해 신천지 신도와 시설정보 전체를 확보해 집중적인 검토 작업에 들어간 데 이어 검찰과 경찰이 신천지를 상대로 각종 고발사건 수사에 나선 상태다.

서울시는 신천지가 세운 법인에 대한 최소 절차 밟으며 세무조사까지 예고했고, 다른 자자체나 정부 부처도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한 신천지 관련 단체 활동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에 나섰

다.

내부적으로도 위기감은 증폭된 분위기다. 신천지에서는 정식 신도든 입교를 준비하는 교육생이든 스스로가 신천지라는 점이 외부에 ‘오픈’되는 것을 극도로 꺼린다.

이들 명단이 정부 손에 넘어간 상황에서 신분 노출을 우려한 이들 중 탈퇴자가 속속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근원 기자 kwp39@hanmail.net

검정고시, 4월 11일→5월 9일 연기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전국의 검정고시 시험일이 1개월 미뤄진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도 제1회 초·중·고졸·고졸검정고시’ 시험일을 기존 다음달 11일에서 오는 5월 9일로 연기한다고 13일 밝혔다.

시험 일정 변경사항은 같은 날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되면서 응시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안내된다. 기존 원서 접수 역시 유효하며, 합격 여부도 6월 2일 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험 연기 취지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 응시자와 국민의 건강과 안전, 상급학교 진학 희망자의 학습권 보장

등이다. 연기 날짜는 전국 17개 시·도가 동일하다.

온라인 접수 수험표 출력은 다음달 24일부터 가능하며, ‘응시자 유의사항 및 시험장 고사실 배정현황’이 같은 날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이다. 특히 ‘응시자 유의사항 안내’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응시제한 대상자 및 안전 수칙이 포함될 계획이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시험장 방역 대책을 세워 안전한 시험 시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곽동근 기자 joongwon1993@hanmail.net

정경심 보석 신청 기각... “증거인멸 우려”

“보석 허락해주면 전자발찌도 감수” 호소 안 통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법원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는 13일 정 교수 측이 낸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죄증 인멸의 염려가 있으며 보석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8일 정 교수는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지난 11일 열린 5차 공판에서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정 교수는 이 자리에서 “내일 모례

60살인데 이런 힘든 상황에서 몸도 좋지 않다”며 “보석을 허락해 주면 그 외 다른 전자발찌는 무엇이든 보석 조건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정 교수는 은닉한 것으로 보이는 노트북과 컴퓨터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정 교수가 구속된 상태에서 실제적 진실이 발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석 기각을 주장했다.

재판부가 이날 보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정 교수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계속 받게 된다.

임호근 기자 diorparty1501@gmail.com

라임 수사팀, 검사 2명 파견 요청...법무부 “좀 지켜보자”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 검사 2명 파견 요청

압수수색 이후 추가 인력 필요하다고 판단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환매 중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검사 2명을 추가로 파견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무부는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며 일단 제동을 건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지난 6일 대검찰청에 특수수사 경험을 가진 검

사 2명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했다. 우리은행과 KB증권 본사, 대신증권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은 관련자 소환조사를 앞두고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도 추가 인력 파견에 동의해 이 같은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아직 라임 펀드환매 중단

사건이 수사 초기 단계라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파견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이 사건과 관련 한 파견 필요성에 대해 법무부도 알고 있지만, 지원을 요청받은 해당 청에서 도 인력난이 있다고 하고 수사 초기 단계라 향후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며 “그 이후 지원이 더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재검토하자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해당 수사팀에는 지난달 5일자로 서

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에서 각각 검사 3명, 1명이 파견된 상태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직제개편으로 사라지면서 수사동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 검사 파견을 통한 수사팀 보강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 펀드환매 중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전직 청와대 행정관이 청와대 근무 시절 금융당국의 검사를 막았다는 의혹과 관련 논증 파일을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혹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라임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에 어떤 지시를 한 적도 없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임성용 기자 apple1945815@naver.com

세계문화유산의 도시
천년왕도
경주

남산지구
대릉원지구
월성지구
산성지구
황룡사지구

소통하는 의정, 시민중심의 의회
“경주시의회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경주시의회
<http://gicouncil.or.kr>

뉴욕 연은 '유동성 공급'에 미국증시 낙폭 완화

초단기 레포 거래 1천억달러에서 1천500억달러로 늘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이 요동치는 가운데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시장에 유동성 공급을 강화하기로 했다.

연준의 '공개시장조작' 정책을 담당하는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9일(현지시간) 하루짜리(오버나이트) 초단기 유동성을 공급하는 환매조건부채권(Repo·레포) 거래 한도를 오는 12일까지 기존 1천억달러에서 1천500억달러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2주짜리 기간물 레포 한도도 기존 200억달러 수준에서 450억달러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유동성 공급 확대는 코로나19 확산에 더해 산유국들의 원유 감산 논의마저 틀어지자 국제유가가 장중 30% 대의 폭락세를 보이고, 글로벌 주식



시장도 다시 크게 요동치는 가운데 나왔다.

뉴욕 연은은 "(은행들의) 준비금이 충분히 유지되고, 정책 시행에 역으

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시장에 대한 압박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레포 거래는 일정 기간 내 되파는

조건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이다. 통화 당국이 채권을 매입하면 그만 시중에는 유동성이 공급된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시중에 일시적으로 자금 수요가 몰리자 지난해 9월부터 레포 거래를 통해 단기 유동성 공급에 나섰다. 이와 함께 한 달에 약 600억달러 규모의 단기물 국채를 매입해왔다.

연준은 당초 이 같은 유동성 공급 조치를 2분기부터 축소할 예정이었다.

연준은 앞서 지난 3일 0.5%포인트의 기준금리 인하를 전격 단행한 바 있다. 17~18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정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둔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취한 선제적 조치였다.

박행주 기자 ph1654911@naver.com



필리핀 마닐라, 한 달간 이동 금지

'코로나19'로 두테르테, 마닐라 일대에 봉쇄령

로드리고 두테르테(원쪽) 필리핀 대통령이 12일(현지 시간) 마닐라 말라카낭궁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현지 관계자들은 두테르테 대통령이 앞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일부 내각 구성원 등을 만난 후 예방 차원에서 검사를 받은 것이라고 전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코로나19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받는 게 아니라 대중과 소통하고 임무를 수행하기에 건강한 상태라는 점을 확실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서 한국 팽이버섯 먹고 4명 사망, 2명 유산...안 익히고 먹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미국에서 한국산 팽이버섯을 먹고 4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팽이버섯을 가열·조리해 섭취하지만 미국은 샐러드 형태로 바로 섭취해 식중독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13일 농식품부는 리스테리아균에 오염된 한국산 팽이버섯을 먹고 4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힌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발표와 관련해 설명 자료를 내고 미국에 수출한 업체의 팽이버섯 시료를 채취해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미국 NBC 방송 등에 따르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미국에서 판매된 한국산 팽이버섯을 먹고 17개 주에서 36명이 식중독을 일으키고 4명이 숨졌다며 조리과정 없이 바로 섭취하는 신선편의식품을 대상으로 진행된 것이어서 일반 농산물인 팽이버섯에는 이러한 별도 기준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팽이버섯을 미국으로 수출한 업체 4곳에 대해 시료 채취 및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업체들 외에도 팽이버섯 재배업체 17개소에 대해 신선편의식품 생산 여부를 조사 중이다. 수거·검사를 진행해 부적합 판정 맨 회수·폐기하기로 했다.

임성용 기자 apple1945815@naver.com

노르웨이 항공, 트럼프發

입국금지 직격탄...직원 50% 감원

북유럽의 대표적인 저가항공사인 노르웨이지안 항공은 1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 26개국가에서 들어오는 모든 사람의 입국금지를 발표한 이후 수요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전체 직원의 50%를 감원하기로 결정했다고 CNN 비즈니스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국가들로부터 30일간 미국 입국을 중단시킨 이후 주요 항공사 주가는 급락했다. 일부 항공

사들은 수주 내 현금이 고갈될 가능성에 대비해 대량의 정리해고를 단행하거나 중앙정부에 구제금융을 요청하고 있다.

노르웨이지안 항공은 12일 주가가 22% 급락한 이후 4000편 이상의 항공편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한편 직원의 50%를 정리해고한다고 밝혔다.

임호근 기자 diorparty1501@gmail.com

트럼프 '도쿄올림픽 연기' 언급에 놀란

日 긴급진화 "예정대로 진행"

일본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연기 제안에 "국제올림픽위원회(IOC)도, 대회 조직위원회도 연기나 취소는 일절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전 세계 항공사들은 코로나19로 여행 수요가 급감하면서 수많은 항공편을 취소하거나 기존 노선을 변경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항공사들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긴급조치가 필요하다"며 "각국 정부가 항공사들을 대상으로 인프라 보호 및 세금 감면 등 지원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7월 24일 개막을 위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대회 진행을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1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리오 베라드카 아일랜드 총리

와의 회담 자리에서 도쿄올림픽에 대해 "그냥 내 생각일 뿐이지만, 어쩌면 그들이 1년 정도 연기할 수도 있다"며 "관중 없이 하는 것보단 1년 미루는 게 나은 대안"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으로 13일 도쿄증시 시장의 닛케이지수는 오전 장중 한 때 1800포인트, 10% 하락해 기록적인 폭락을 이어갔다.

만일 도쿄올림피이 연기되거나 취소되면 IOC와 조직위, 도쿄도(東京都) 모두 큰 손실을 보게 된다. SMBC닛코(日興)증권은 도쿄올림피이 취소되면 6700억엔(약 7조 8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유현민 기자 hmin0330@naver.com

시민이 행복한 세상,
남원시의회가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 ✓ 미래를 준비하는 의회
- ✓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
- ✓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남원시의회
Namwon City Council



성남시, 코로나19 확산방지 15곳 집회 금지

집회 금지 명령에도 금광1구역 건설 노동자들 1000여 명 충돌



성남시는 시청 앞 광장 등 관내 15곳에 대해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집회를 금지한다고 고시했다.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성남 금광1구역 건설 노동자들이 집회를 열 것으로 보여, 방역 당국인 성남시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12일 아파트 공사 현장에 민주 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건설노조 조합원 1000여명이 충돌했다.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성남시가 12일 0시부터 집회를 금지시켰음에도 이를 어기고 강행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폭행 혐의로 4명이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제한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다.

이들의 충돌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자 은수미 성남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집회 중지'를 촉구했다.

은 시장은 13일 오전 "이미 성남시는 12일 0시부터 집회를 금지도록 고시한 바 있고, 이는 시민 건강과 안전, 인근 주민 불안감을 겪어내야 하는 조치"라며 "재개발 현장에서 하는 모든 집회는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은 시장은 "지금은 국가적 재난

상황이고, 사회적 연대와 공적 시스템의 역할이 조화롭게 강조돼야 할 때"라며 "94만 시민의 이름으로 집회를 멈출 것을 주문한다"라고 밝혔다.

은 시장은 "성남시만도 지역 내 병원 내에서의 감염으로 인해 어제에 이어 오늘도 한분이 사망하셨고, 확진자도 20명 넘었다"라고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양대 노총 노동자 갈등 풀리지 않아 언제든지 충돌 가능

성남시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의 저지로 12일 발생한 충돌이 13일에 다시

일어나지는 않았다. 경찰 1000여 명이 집회 장소를 미리 선점, 해산 명령을 내리자 노동자들은 자진 해산했다.

그러나 양측이 갈등이 풀리지 않아 충돌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집회신고는 4월 5일까지 돼있다.

금광1구역은 지난 1월 29일부터 약 한 달 동안 양대 노총 노동자들이 서로 맞불 집회를 벌이며, 충돌이 이어진 곳이다. 골조공사 업체가 민주노총 조합원만 고용하자 한국노총이 이에 반발해 추가 고용을 요구하며 충돌이 일었다.

코로나19 확산과 소음·교통체증 등의 문제로 주민 항의가 잇따라 지난 달 22일 집회를 중단하고 일자리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 성남시와 고용노동부, 인근 주민 등이 중재에 나서면서 시공사인 대림산업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각각 100명, 60명씩 고용하기로 했다.

이에 지난 9일부터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출근해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었지만, 민주노총이 한국노총 때문에 한 달간 일을 못 했으니 당장 투입은 안 된다며 저지에 나섰고, 다시 갈등이 시작됐다.

민주노총은 지금도 한국노총 노동자 투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운조 기자 wj373@gmail.com



안양시가 코로나19의 시청사 확산에 대비한 정보통신분야 임시근무획립계획을 마련했다.

안양시, 코로나19 사무실 패쇄 가정 대비책

정부원격근무시스템 활용 재택근무 추진

공공청사의 방역 망이 뚫릴 경우 공무원들의 재택근무 추진과 정보화교육장이 즉시 사무공간으로 활용된다.

안양시가 코로나19의 시청사 확산에 대비한 정보통신분야 임시근무획립계획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 및 의심증세로 재택근무자로 지정된 경우, 정부원격근무시스템을 이용해 '새울'과 '온나라'(공무원 내부전자결재환경)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청사 내 확진자가 발생해 해당부서가 폐쇄되면 우선 청사8층 공무원 정보화교육장을 임시사무실로 활용한다. 이곳에 설치된 행정망 컴퓨터 31대는 즉시 사용 가능하다.

평촌도서관 전자도서관, 평생교육원과 부림동행정복지센터의 시민정보화

교육장 등도 임시 사무공간으로 확보해놓은 상태다.

시는 정보통신분야를 담당하는 부서가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되는 경우에도 대비, 평촌도서관의 전자도서관과 청사 지하1층 CPX 상황실을 이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보통신부서 직원 전체가 격리되는 불가피한 상황에는 구청으로부터 인력을 지원받는다는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만에 하나 청사 및 부서폐쇄가 발생하더라도 가용장비와 인력을 최대한 가동, 부서 간 긴밀한 협조로 업무의 연속성 확보해 시민들이 불편겪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순철 기자 ash1931@naver.com

단신 News

동두천시,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 모집

동두천시는 부모와 보육전문가가 직접 어린이집의 운영상황 모니터링을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을 모집한다. 부모 모니터링단은 관내 93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결식, 위생, 건강, 안전관리 등의 보육환경에 대한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하게 된다.

참여자격은 동두천시 거주자로, 부

모는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 아자녀를 두고 있어야 하며, 보육전문가는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소지하고, 보육현장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모집인원은 부모 2명, 보육전문가 2명으로, 참여 희망자는 3월 18일 ~3월 27일까지 동두천시청 여성청소년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선발된 부모와 보육전문가는 어린이집 현장 실습과 교육을 거쳐 2인 1조로 구성하여 운영되며, 1일 1개소 당 부모는 4만원, 보육전문가는 6만원의 활동 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가평군,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신고 의무화

가평군은 오는 16일부터 정보통신공사 감리를 받주 받은 용역사업자는 반드시 공사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고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말부터 도(道)에서 시행중인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신고제'가 이달 16일부터 시·군으로 사무 위임이 따른 것이다.

이에 군은 정보통신공사 현장기준으로 감리를 받주 받은 용역업자는 해당 공사의 착공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리

원의 배치신고서를 작성해 군 자체행정과 통신팀에 접수해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1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시공품질을 확보하고자 공사현장 내에 감리원을 배치하고 배치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해 8월 통과시켰다.

본 개정안에 따라 정보통신공사를 감리하는 용역업자는 감리원의 배치 기준에 적합한 감리원 1명을 공사가

시작하기 전 현장에 배치해야 하며 감리원은 발주자와 합의한 기간 동안 공사현장에 반드시 상주해야 한다.

여주시, 저녹스버너 설치비 일부 지원 추진

여주시(시장 이항진)는 질소산화물(NOx) 등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저녹스 버너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가능한 대상은 중소기업, 비영리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의 기존 일반 버너를 저녹스 버너 등으로 교체하는 경우이다.

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의 인정검사에서 적합한 것으로 판정받은 설비에 한하며 지원 예산규모는 15,290천 원으로 2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사업보조금은 버너 1대당 최대 7,645천원을 지원하며 지원금액 외의 비용은 자부담해야 한다. 저녹스 버너는 타월할 NOx 저감효과 뿐 아니라 일부 모델의 경우 5%의 연료 절감율을 보이고 있어 일반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시 사업장에 경제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통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일상 속 교통 안전을 책임집니다.

50 30

자동차 안전을 강화합니다.

자동차 리콜

- 도시부 속도하향 5030확대
- 사업용 자동차 안전 관리
- 실시간 어린이 안심통학버스 서비스 추진
- 생애주기를 고려한 철도 안전관리

- 사업용 대형버스 검사 전담
- 자동차 안전도 평가
- 자동차 결함 정보 수집·분석

미래교통 혁신을 선도합니다.

K-CITY

- 자율주행자동차 테스트 베드 운영
- 드론 종합안전관리체계 구축
- 첨단자동차 검사기술 연구

사회적 책임을 실천합니다.

김교통 어린이가

-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지원
- 운수종사자 양성 등 좋은 일자리 창출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활동 시작

오피스텔·상가 관리 문제 등 전문가 직접 상담 지원

경기도는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 건물에 전문가들이 직접 방문해 관리 문제에 대한 자문을 해주는 '집합건물 관리지원단'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은 법률, 회계, 사무관리, 시설안전, 노무 등에 현장경험이 있는 총 5개 분야 30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지원단은 현장을 방문해 관리비 관련 예산과 회계, 관리규약 작성, 관리 단 소집 절차, 건물관리방법, 근로계약 등에 대해 도움을 주게 된다.

서비스 신청 대상은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 상가,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 등이며,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서비

스를 신청할 수 있다.

단,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신청 시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

신청 방법은 경기도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팩스로 전송하거나 우편(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건축 디자인과)으로 접수하면 된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임주자 등이 직접 관리인 선출, 규약 제정 등을 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현장 자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투명한 관리비 징수 및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곽동근 기자 joongwon1993@hanmail.net



경기도는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의 관리문제를 자문해주는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운영한다.



시흥시 오이도항.

시흥시, 오이도항 개발 나선다

'지방어항' 지정…8년간 282억 원 투입

오이도항이 최근 경기도 지정 '지방어항'으로 고시됨에 따라 경기 시흥시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도비 및 시비 282억원을 투자해 각종 시설을 조성한다고 28일 밝혔다.

시와 도는 이 기간 일부 갯벌 매립 및 준설을 통해 어민들의 어로 활동을 위한 물양장과 어민 대피시설 등을 조성하고, 방파제 등도 정비할 계획이다.

그동안 오이도항은 무역항으로 지정돼 있었으나 최근 들어 무역항 기능을 상실하면서 2016년 무역항

에서 해제됐다. 이후 경기도에 이 항구를 어민들의 어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지방어항'으로 지정해 달라고 시는 요구해 왔다.

지방어항으로 지정되면 시흥시가 어항을 관리하게 되나 개발계획 수립 및 시행 등 총괄적인 관리 권한은 도지사가 갖게 된다.

한편 오이도항은 지난해 12월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인 '어촌뉴딜300 사업' 대상지에 선정돼 다양한 개발 사업도 추진 중이다.

임경복 기자 axoway1212@naver.com

수원시, 고색동 화물차 공영차고지 이달 완공

13일 경기 수원시는 권선구 고색동 551번지 일원에 건립 중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오는 25~26일 완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억원(국비 51억원, 시비 149억 원)을 투입해 지난해 6월 착공한 고색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현재 내부 마무리 공사만 남겨두고 있다.

이곳에 화물자동차 110대와 승용차 95대를 동시에 주차할 수 있으며 운전자를 위한 휴게시설도 마련됐다. 시는 완공 후 수원도시공사와 위탁관리계약

을 체결한 뒤 주차장 이용요금과 사용 시간을 정해 4월 중순 이전에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시는 현재 대황교동에 193대를 주차할 수 있는 화물자동 차 공영차고지 한 곳을 운영 중이다.

시 관계자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조성되면 불법 주차로 인한 교통 사고를 예방하고 운수업 종사자의 근로 여건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시가 단속한 화물자동차 불법 주차 건수는 990건이고, 과태료 부과액은 6060만원이다.



포천시, 기업현장 방문 애로사항 청취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경기 포천시는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기업 경영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기업인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11일부터 5 일간 삼진프라스틱공업㈜을 시작으로 지역 내 8개 기업 방문을 시작했다.

이번 방문은 코로나19로 인한 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간단한 기업소개와 대표 인사말씀, 시장 격려말씀, 기업 건의사항 토론, 기업 제품 생산현장을 시찰하고 근로자들과 현장에서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기업의 각종 규제파악, 일자리 및 자금 지원 등을 위해 법무규제개혁팀장, 일자리센터팀장이 함께했으며, 기업 소재지 읍·면·동장, 건의사항 관련 담당팀장이 참석해 원스

톱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남철 삼진프라스틱공업㈜ 대표이는 "현안에 바쁜 와중에 기업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시장님께 감사드린다."며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도약하여 우리 기업은 물론 포천시 발전에도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박윤국 시장은 "시에서도 이 시국을 이겨내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김수홍 기자 ypaper@kg21.net



역사적인 순간은 늘 종이와 함께 했다

모든 사물에,
모든 사유에,
과거와 현재, 미래에도…

역사적인 순간은
늘 종이와 함께 했다

비용 대비 큰 효과를 노린다면?
명확한 타깃에게 어필하고 싶다면?

지금이 바로
잡지에 광고해야 할 때!!



이철우 경북지사,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청

"지역 경제 큰 타격-재난기본소득 제한적 보장해야"

지난 11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영세상인 등에 기본 소득을 보장해준다면 모르겠으나 모든 국민에 대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어렵다고 생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특별재난지역이 돼 피해를 많이 본 사람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으나 현재 지원하는 것은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는 것으로 기본소득을 주는 것은 고민할 이유가 많다"고 부언하며, "이는 자본주의 정신을 지키는 가운데 제한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는 조심스런 의견을 제시했다.

또, 이 지사는 이날 경북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천72명(사망 16명 포함)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2일 오후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나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에 이르고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입고 있어 경북 전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권영진 대구시장도 대구지역의 특별 재난지역 선포해 달라고 건의한바 있

다.

이와 관련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구와 경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각계의 요구에 대해 "특별 재난지역 선포는 자연재해 때 활용한다.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는 것은 감염병 방지법에(지원 방법) 자세하게 나와 있다"며 "이 법을 활용해 돋는 게

더 낫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며 특별재난지역 선포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실제 이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지 주목을 받고 있다.

대구·경북은 현재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대구·경북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감염병으로 인한 최초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례가 되며 대구·경북은 현재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한편, 대구 와 경북도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관련 피해 상황을 조사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하게 되며, 방역관리 비용, 주민 생계·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되고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요금 등 감면 등 혜택이 주어진다.

배영달 기자 bdd600@naver.com

안동시, 2020 벚꽃축제 전면 취소 결정



품종인 왕벚꽃 300여 그루가 화려한 꽃을 피워 자연이 선사한 축제로 상춘객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올해 축제는 벚꽃 개화 시기에 맞춰 다양한 콘텐츠와 버스킹공연, 빛이 있는 전시, 체험행사 및 부대행사 등을 계획했으나, 아쉽지만 내년을 기약하고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하기로 했다.

시는 현재 대부분의 공공시설을 휴관하고 문화예술 행사를 잠정 중단하고 있으며 취약시설 및 밀폐된 장소에 집중 방역도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금은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길 모두가 힘을 모을 때이며, 벚꽃축제는 취소됐지만, 개화 시기에는 상춘객들의 안전을 위해 방역 조치와 편의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선호 기자 aaa2779@naver.com

김충섭 김천시장, 평화시장 청년몰 조성 사업 현장 방문

코로나19 극복! 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행정 펼쳐



김충섭 시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침체된 지역경제, 특히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 지난 3월 9일(월) 주력사업인 평화시장 청년몰 조성 사업 현장을 방문해 발

로 뛰는 행정을 펼쳤다.

김 시장은 김해용 청년몰 조성 사업 단장으로부터 청년몰 조성 구역에 대한 현황 보고를 받은 뒤 현장 곳곳을 살폈으며, 사업 추진상 문제점 등을 직

이시아 기자 ditifk115@naver.com

부산시, 임산부 콜택시 운영 업무 협약 체결

부산시는 12일 시청 26층 회의실에서 부산시의회, 부산시설공단 및 부산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임산부 콜택시(마마콜)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전국 광역자체 최초로 추진하는 임산부 콜택시(마마콜) 운행(3월 16일부터)에 앞서 관계기관(단체) 및 마마콜 대표기사들이 참석해 마마콜의 성공적인 출범을 다짐하고 임산부 콜택시 안전운행 선언문을 채택하는 자리이다. 민선7기 보육종합대책 '부산아이다(多)가치키움'의 구체적인 시책 중 하나인 임산부 콜택시(마마콜) 운영사업은 부산시가 부모와 함께 아이를 키우겠다는 의지를 담아 추진되었으며, 부산시에 주민 등록을 둔 임산부라면 누구든지 일반시 요금의 65%를 할인받고 임산부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김천시, 소상공인 상·하수도요금 50% 감면

1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2개월간 사용분



2020년 1월 중순 ~ 3월 중순까지 사용분(2개월)

김충섭 시장은 "심각한 국가적 위기에 맞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행하겠다는 결연의 의지를 갖고 상황에 대처하고 있다며 지역 경제가 더 이상 침체되지 않도록 베풀 목 역할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천영 기자 lovesg427@hanmail.net

감추어도 느껴지는 대한민국 미소

언제나 희망을 잃지 않는 대한민국 미소의 힘은
항상 우리 안에 있습니다.

바른 소통의 자세로 나보다 남을 위해
따뜻한 미소를 지닌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여수시, 국립해양기상과학관 건립 본격 추진

기상청과 업무협약 체결...과학-기술-문화 융합공간

기상청과 여수시는 국립여수해양기상과학관 건립을 위해 오늘(12일) 업무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건립에 들어갔습니다.

김종석 기상청장과 권오봉 여수시장은 오늘(12일)과학관 건립을 위한 MOU를 맺고 적극적인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여수시는 기상청에 과학관 건립부지를 제공하고 과학관 건립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게 됩니다.

국립여수해양기상과학관은 오는 2023년 개관 목표로 여수시 공화동에 들어선다. 여수시 공화동에 들어설 국립여수해양기상과학관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해양기상을 다루는 과학, 기술, 문화, 산업 융합공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면적 5천450㎡,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266억원을 투입해 건립되는 국립여수해양기상과학관은 오는 2023년 하반기 개

관할 예정입니다.

전시체험 콘텐츠는 태풍, 풍랑, 해일 등을 주제로 한 전시공간과 기상

과학의 이해를 높이는 오감만족 체험 콘텐츠로 구성됩니다.

김종석 기상청장은 “국립여수해양기상과학관이 건립되면 여수의 특성과 어우러져 더욱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며 “국립여수해양기상과학관이 국민들에게 해양 기상과학 기술과 문화를 다채롭게 제공할 수 있는 체험 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권오봉 여수시장은 “건립부지 예산 72억원을 여수시가 어렵게 확보해 국립여수해양기상과학관이 건립되는 만큼 해양기상 테마에 맞는 최고의 기상과학관을 건립해 많은 학생과 관광객들이 방문해 만족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성재 기자 tosji@naver.com



남원시가 요천천에서 은어 5만마리 방류행사를 가졌다.

남원시, 요천천 은어 5만마리 방류 행사

남원시가 관내 요천천의 생태계 복원을 위해 토종 민물고기 은어 5만마리 방류행사를 가졌다.

유민상 기자 tantan66@naver.com

보성군, 면마스크 군민 1인당 1매 보급

보성군이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해 관내 봉사단체와 손을 잡고 면마스크 제작에 나섰다. 이번 마스크 제작 활동에는 보성군 여성단체협의회와 소비자교육중앙회 보성지회 등 10개 봉사단체 50여명의 재능나눔 봉사자가 참여한다. 군은 3월 20일까지 제작을 목표로 마스크 4만 2천장을 제작해 군민 1인당 1마스크를 보급할 예정이다.

특히, 은어는 가을에 수정·부화하여 바다로 내려가 육지와 가까운 곳에서 겨울을 보내고 이듬해 3~4월경 하천으로 거슬러 올라 하천의 상류에서 서식하는 어종으로, 고기 맛이 담백할 뿐만 아니라 비린내가 나지 않고 특유의 수박향이 있어 횟감, 튀김용으로 많은 미식가들에게 인기가 높은 어종이다. 한편, 남원시에서는 어족자원 확보와 생태계 복원을 위해 다양한 어종을

이성재 기자 tosji@naver.com

전북도, 농가 사료 구매 지원금 지원

양돈농가 모돈 자율감축 참여농가 우선

전라북도는 양돈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모돈 자율감축 양돈농가를 우선으로 사료 구매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에 배정된 2020년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예산 369억원 중 192억원은 모든 자율감축한 양돈농가에 우선 지원하고 177억원은 양돈농가를 제외한 축산농가에 지원한다.

사료 구매자금 지원조건은 융자 100%, 금리 1.8%, 2년 일시상환으로, 신규 사료구매 대금과 기존 외상금액의 상환 용도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이며 축산업을 등록하지 않은 농가는 축산업 등록후 신청할 수 있다.

우선지원대상은 소 16마리, 돼지 333마리, 양계 1만마리, 오리 1,666마리 미만 등 영세농가,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피해농가, 축산물 가격이 생산비 이하 농가, 모든 감축농가, 동물복지형 축산농가 순이다.

농가당 지원 한도액은 한우, 젖소, 돼지, 닭, 오리는 6억원, 기타 축종은 9천만원이며, 모든 자율감축 농가, 구제역 및 AI 피해농가는 농가당 지원한도 1.5배까지 지원이 가능해 9억원 한도내에서 마리당 지원단가에 사육마리수를 곱해 지원금액이 산정된다.

지원단가는 마리당 한우우 136만원(피해농가 204만원), 낙농 260만원(피해농가 390만원), 양돈 30만원(피해 및 모든 감축 농가 45만원), 양계 1만 2천원(피해농가 1만 8천원), 오리 1만 9천원(피해농가 2만 7천원) 등이다.

지원 받고자 하는 농가는 해당 읍·면·동 및 시·군에 신청하면 되고 시·군에서는 사육수, 대출잔액, 피해여부, 모든 감축 여부 등을 검토해 지원대상자로 확정하면 농가 사료구매자금 선정·주천서를 발급받아 지역 농·축협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영신 기자 ieeysin7789@hanmail.net

영암군, 동물등록 내장형 식별장치 시술 지원

영암군은 효율적인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이달부터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이용한 시술비 지원으로 유기·유실 예방과 견주의 책임강화로 견전한 반려동물 문화정착에 앞장 설 계획이다.

2013년부터 동물보호법제12조에 의거 등록대상 동물의 소유자는 동물보호와 유실·유기방지를 위하여 3개월 이상의 반려동물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 7.8월 중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14백여건의 등록을 마쳤다. 그러나 아직도 동물등록이 미흡한 걸로 파악되고 있어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분실 위험이 적으며 효율성이 높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에 한해서 선착순 지원방침이다.

동물의 목에 장착하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와 인식표는 동물병원에서 2만원 이하로 등록비용 저렴하여 손쉽게 이용하고 있으나, 내장형무선장치

(침) 등록비용은 4만원 선으로 비용이 높아 이용을 꺼려하고 있어 견주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하여 군에서는 2만원 한도 내에서 (50% 보조) 지원 할 계획이다

동물등록대행기관으로는 반려견에 대해 전문적으로 외과적 시술이 가능한 수의사가 있는 곳으로 영암군 관내에 2개소를 지정하였다.

군은 지정동물병원으로는 영암읍에 제일가축병원, 신북면에 나은동물병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밝혔다.

외장형 무선식별장치와 인식표는 영암군청 축산과나 지정동물병원에서 종전대로 시행하므로 등록비용과 수수료를 부담하고 등록하면 된다.

김봉순 기자 hanminilbo@daum.net

광/고/문/의
☎ 1899-2026

순천사랑상품권 10% 특별 할인 확대

순천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순천사랑상품권 특별할인판매’를 3월 16일(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할인은 기준 5%에서 10%로 확대되며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적 불안감 장기화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시행한다.

순천시는 특별할인을 위해 순천사랑상품권 20억원을 확보했으며, 물량 소진시까지 추진된다.

4월 이후로는 코로나19 대응상황에



순천사랑상품권 10% 특별 할인

따라 할인판매기간 및 특별할인판매액을 결정해 나갈 계획이다.

김봉순 기자 hanminilbo@daum.net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 다함께 이겨냅시다!



번개처럼 빠르게 저장하다

삼성전자 포터블 SSD X5 Thunderbolt™ 3 외장 스토리지

Thunderbolt™ 3 기술과 NVMe 인터페이스를 탑재한 삼성전자 포터블 SSD X5는 전문 콘텐츠 제작자에게 필요한 눈부신 전송속도를 선사합니다. 슈퍼카를 닮은 세련된 디자인, 첨단 열 처리 기술과 암호화 기술로 완성한 최상의 스토리지를 경험해보세요.

* USB 인터페이스 기능만 지원하는 PC에서는 호환이 불가합니다. Thunderbolt™ 3 포트가 설치된 Macs 및 Windows PC에서만 호환 가능하며, 호스트 구성에 따라 성능은 다를 수 있습니다.
(Mac OS X Sierra, High Sierra 10.12 또는 그 이상, Windows 10 64 bit RS 2 또는 그 이상) 최대 읽기/쓰기 속도 실험 시스템 환경 : Dell Alienware System (Dee i7 Alienware 17 R5), OS - Win10 x64, CPU - Intel® Core™ i7 8570H(@4.1GHz), Memory - DDR4, 16GB 2667 MHz, BM Tool - CDM 5.1.2

X5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www.samsung.com/portable-ssd에서 확인하세요.

